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김 두 섭**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핵심단어: 외국인 배우자, 소수집단 지위, 사회적 자본, 이민자의 적응, 한국 출산력

I. 머리말

최근에 이르러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대체 이동(replacement migration)'의 개념과 인구재생산에 있어서 이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UNPD, 2000).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에서는 이민이 인구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아 왔다. 벨기에,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이민으로 인하여 인구성장이 재개되었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인구감소를 상당 수준 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OECD, 2004; Coleman, 2006).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일본과 대만 같은 극동아시아 지역에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duskim@hanyang.ac.kr

서는 영구적 이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지난 몇 십년간 이들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한국에서의 국제결혼 등록건수는 2005년 4.3만 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7년에는 3.8만 건으로 집계되었다(KNSO, 2008b). 일본의 국제결혼은 2004년 4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결혼의 5.5%에 해당된다(NIPSSR, 2006). 대만에서는 2003년 국제결혼의 구성비율이 전체 결혼의 31.9%의 정점에 도달한바 있다(MOI, 2007).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노동이동과 인적 교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증가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의 절대 건수와 구성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으로 심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국제결혼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Héran, 2005; 보건복지부, 2006). 혼인이주자는 출산과 경제활동을 통해 이주사회의 생존력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 된다(보건복지부, 2006; Jean, 2005; Yang and Schoonheim, 2006에 인용; 여성부, 2007).

최근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본, 대만과 한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젊은 여성들이 지니는 노동자 및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Piper, 1999, 2003; Yu, 2001; Piper and Rocés, 2003; Hsia, 2004; Lee et al., 2006).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결혼과정과 혼인이주자들의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들 국제결혼 부부들의 출산 수준과 속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Coleman, 1994, 2006; OECD, 2004; Yang and Schoonheim, 2006; Chen, 2007, 2008; Kim, 2008a, 2008b).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출산력의 관계의 본질과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어떠한 출산력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가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낮은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출산력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연구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널리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연결망에 관한 이론들을 혼인이주 여성들에게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목적도 지닌다. 이를 위해 우선 소수집단 지위와 출산력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검토되었다. 이 연구는 소수집단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설을 한국 거주 외국인 아내에 적용하여 검증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를 통합하여 외국인과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아내들의 상대적 출산수준과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이 시도되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 비교분석은 외국인 아내들의 재생산 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과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인과기제, 차별출산력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적 자료는 장래의 출산력 수준과 양상을 추정하고, 아울러 적절한 인구정책을 입안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소수이민자의 지위, 사회적 자본과 출산력

이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출산력에 관한 가설은 소수집단의 지위와 사회적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다. Goldscheider와 Uhlenberg(1969)에 의하면 소수집단 구성원의 출산력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 현지 사회에 대한 동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의 지위와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van Heek, 1956; Sly, 1970; Kennedy, 1973; Johnson, 1979; Fischer and Marcum, 1984; Sorenson, 1985, 1988; Abma and Krivo, 1991).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개연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물질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속박, 불안정성에 대항하며 상승이동을 달성하고자 출산력을 주류집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van Heek, 1956; Goldscheider and

Uhlenberg, 1969; Ritckey, 1975; Goldscheider, 1999). 미국에 거주하는 유태인과 일본인들의 출산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것이 좋은 예에 해당 된다. 최근 김두섭(Kim, 2008a)과 Chen(2007, 2008)은 대만 자료를 활용하여 비대만인 아내들의 자녀수가 대만인 아내보다 적고, 출산간격 또한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외국인 아내들의 열악한 사회적 자본이 출산 수준의 결정요소로 작용한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간의 사회관계구조에 내재하는 자원으로 정의한바 있다. 사회관계구조나 사회연결망 내에서 행위자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각종 정보, 자원, 권력에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oxman et al., 1991; Lin, 1999, 2001).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내가 지닌 사회연결망의 크기, 구성적 특징과 직업위세로 사회적 자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주 후 현지 사회의 다양한 개개인들과의 접촉기회의 빈도, 적극적 사회활동은 직업위세가 높은 연결망과의 접촉기회를 늘리고, 아울러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Granovetter, 1974; Burt, 1997). 역으로,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 아내의 열악한 사회적 자본이 과연 그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수준 이하로 출산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를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의 편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한다. Berry(1987)는 복합사회에서 특정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이나 종교집단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아울러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문화변용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Berry의 이 같은 논의를 변용시켜 이주 후의 적응 유형을 설명하는 두 축으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정체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아내들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고립(iso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적응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의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질은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과정에서 증가하기 마련이다. 강한 사회적 통합과 동화의 열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외국인 아내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속박, 불안정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낮추어 출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Glazer and Moynihan, 1963; Gordon, 1964: 191-192). 그리고 사

<표 1> 사회적 자본과 문화정체성의 수준에 따른 이주자의 적응 유형

		문화정체성	
		강	약
사회적 자본	강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약	고립 (isol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자료: Berry(1987); 김두섭(1998).

회통합과 동화의 과정에서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이 점차적으로 주류사회의 출산력 양상에 근접해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Kahn, 1988; Ford, 1990; Abbasi-Shavazi and McDonald, 2000)). 이 연구에서 검증할 또 다른 가설은 외국인 아내의 적응형태가 출산력에 과연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여부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 1) 외국인 아내의 불리하고 불안정한 지위는 출산력을 억제하거나 출산시기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작고, 결혼으로부터 첫째 및 둘째 자녀 출산시기까지의 간격이 길 것이다.
- 2)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은 이들의 출산행위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주 후 다양한 개개인들과 접촉기회의 빈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직업위세가 높은 사회연결망과의 접촉기회를 늘어날수록 외국인 아내의 자녀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3)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편차는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적응형태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환경에 통합되거나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은 고립되거나 주변화된 외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많을 것이다.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Ⅲ. 분석자료와 연구대상의 특성

이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산력 자료는 『아시아 여성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와 정착과정에 관한 조사』(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2007)로부터 추출되었다. 분석대상은 17-46세의 여성 유배우자들이다. 다른 외생변수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조사시점 당시 초혼상태에 있던 558명의 외국인 아내들로 국한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외국인 아내들의 표본은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 이주해 온 여성들의 비율이 각각 30.5%, 34.8% 및 34.8%에 해당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가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과 일본은 규모, 이주 역사, 사회경제적 특징 등에 있어서 상징적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두섭, 2006; 김두섭 외, 2008; Kim and Lee, 2008). 통계청의 2007년 혼인신고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중에서 이들 세 나라 국적의 여자들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78.3%이었다(통계청, 2008b).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인구학적 조사가 행해진바 없다. 이 연구에서 외국인 아내의 출산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 자료는 『전국 결혼 및 출산력 조사, 2005』(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로부터 추출되었다. 이 조사의 원자료에서 위의 외국인 아내와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지닌 한국인 유배우 여성 1,233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외국인 아내의 표본과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두 조사의 실시시점이 각각 2007년과 2005년으로 2년간의 간격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비교분석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이렇게 구축된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아내의 출신국가, 사회적 자본과 이주 후 적응형태에 따라서 각종 출산력 지표가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2>에는 분석대상인 1,791명 여성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평균값이 출신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아내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어린 나이에 결혼 하였으며, 한국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짧고, 자녀수가 적으며 출산간격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을 나타낸다.¹⁾ 반면, 일본인 아내들은 이와 가장 대조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남편의 평균 나

1) 베트남인 아내와 일본인 아내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결혼기간보다 짧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결혼신고를 먼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입국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표 2> 분석대상의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의 평균값

	한국 거주 외국인 아내의 출신지역				한국인 아내 (1,233)
	중국 (170)	베트남 (194)	일본 (194)	합계 (558)	
연령_아내	30.8	23.8	39.3	31.3	31.4
연령_남편	40.1	40.5	42.4	41.0	34.1
초혼연령_아내	26.8	21.8	27.9	25.5	26.8
한국거주기간 (개월)	58.3	22.8	123.9	68.0	-
결혼기간 (개월)	47.3	25.1	136.8	71.0	55.3
자녀수	0.7	0.5	2.0	1.1	1.3
남편의 이전 결혼의 자녀수	0.1	0.1	0.1	0.1	0.0
추가 희망 자녀수	2.3	2.6	2.6	2.5	0.9
결혼-첫 출산 간격 (개월)	17.4	14.7	19.5	16.8	15.5
첫째-둘째 출산 간격 (개월)	23.6	20.8	29.0	27.8	29.2
결혼-둘째 출산간격 (개월)	39.7	37.0	65.6	60.0	41.6
연결망_크기	5.4	3.8	15.5	8.9	-
연결망_사회활동	48.5	48.4	72.4	56.8	-
연결망_위세	6.9	2.8	13.4	7.7	-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이는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결혼에서의 평균 자녀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가 각각 1.1명과 1.3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자녀수는 국가별로 커다란 편차를 나타낸다. 그동안 외국인 아내들의 재생산 행위는 출신지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Young, 1991; Coleman, 1994; Lee et al., 2006; MacMillan, 2008; Kim, 2008a; Chen, 2008). 출산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혼인이주한 외국인 아내들은 저출산 지역 출신의 외국인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을 개연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세 출신국가 중에서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이 가장 높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1.89를 기록하였고, 중국, 일본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75, 1.23와 1.26으로 집계되었다(Census Bureau, 2008; 통계청, 2008a, 2008c).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으로부터 혼인이주한 여성들이 출신지역의 고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열악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출산력 억제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일본인 아내들의 평균 자녀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

아내 1.3명, 중국인 아내 0.7명의 순이었고 베트남인 아내는 가장 적은 0.5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아내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8b).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의 이전 결혼에서의 평균 자녀수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0.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0.0명이었다. 추가로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일본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가 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 아내는 0.9명에 불과하였다. 일본인 아내의 현재 자녀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희망하는 자녀가 많은 것은 이들의 절대다수(87.6%)가 통일교도라는 사실과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가족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낮은 피임률로 특징지어진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긴 한국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별거율이 낮고, 한국말이 서툰데, 취업률과 한국 시민권 취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외, 2008; Kim, 2008a).

이 연구에는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 세 독립변수가 창출되었다. 연결망_크기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와 같은 인종 친구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외국인 아내의 다섯 가지 사회활동(정착지원 프로그램, 자녀관련 모임, 종교단체, 이웃 및 친교 모임, 자원봉사단체)에의 참여 여부와 빈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사회활동의 평균값을 역수로 반영하는 가중치를 곱한 상태에서 합산하여 연결망_사회활동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결망_위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4 가지 직업을 제시하고, 본인 또는 남편의 친한 친구나 친척 중에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알면 해당 직업을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선택한 직업 중에서 상위 1-6위 위세의 직업이 몇 가지가 포함되었는가를 세어 그 개수에 10을 곱한 값을 연결망_위세의 값으로 삼았다.²⁾

〈표 2〉에서 사회적 자본의 세 지표의 수준은 일본인 아내가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아내들은 한국에 친한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결망 위세점수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베트남인 아내는 세 변수에서 모두 가장 낮은 값들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와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은 분석대상 부부의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신국가별로 크게 다른

2) 이 변수들의 보다 자세한 조작적 정의와 창출과정에 관해서는 김두섭 외(2008)를 참조할 것.

<표 3> 분석대상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의 구성분포

	한국 거주 외국인 아내의 출신지역				한국인 아내 (1,233)
	중국 (170)	베트남 (194)	일본 (194)	합계 (558)	
거주지					
대도시	69.4	65.5	39.2	57.5	42.3
중소도시	20.0	11.3	44.8	25.6	32.8
농촌	10.6	23.2	16.0	16.8	2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내의 교육					
초등학교	3.0	14.2	0.0	5.7	0.2
중학교	26.8	51.4	0.5	25.9	1.3
고등학교	48.8	24.0	47.4	39.9	47.8
대학 이상	21.4	10.4	52.1	28.5	5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교육					
초등학교	0.6	3.6	3.2	2.5	0.2
중학교	16.0	18.5	10.0	14.6	0.8
고등학교	54.6	57.7	45.8	52.4	41.2
대학 이상	28.8	20.2	41.1	30.5	57.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내의 직업					
전문직 종사자	1.2	0.0	15.1	6.0	12.8
사무직 종사자	1.2	0.0	2.6	1.3	10.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6.7	1.2	5.2	4.4	9.1
농업 종사자	3.0	1.9	0.5	1.7	0.3
기타	12.7	8.6	3.6	8.1	3.2
일하지 않음	75.2	88.3	72.9	78.4	64.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의 직업					
전문직 종사자	11.0	4.8	32.5	16.9	28.2
사무직 종사자	16.5	13.9	18.8	16.5	20.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4.4	13.9	19.4	19.2	18.7
농업 종사자	5.5	15.7	4.2	8.3	0.5
기타	42.1	51.2	21.5	37.4	28.4
일하지 않음	0.6	0.6	3.7	1.7	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분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거주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일본인 아내들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베트남인 아내들은 다른 외국인 아내들에 비해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가 현저하게 높고, 반대로 베트남인 아내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다. 대학교육을 받은 일본인 아내의 비율이 52.1%인 반면,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4%에 불과하다. 베트남인 아내의 14.2%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한국인 아내의 남편이 일본인 아내를 가진 남편보다 약간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부부간의 교육수준의 격차는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3〉에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절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특히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에 그러하다. 일본인 아내의 약 15.1%는 전문직 종사자이나,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 비록 절대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남편의 직업구성 역시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 남편의 직업위세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경우에 가장 높고, 한국인 아내, 중국인 아내의 순이며,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한 남편에게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인 아내를 가진 한국인 남편에게서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베트남인 아내를 가진 남편의 농업종사자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IV.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출산력 편차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지표와 이주 후 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수의 편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련의 분산분석(ANOVA)이 행해졌다.³⁾ 〈표 4〉에서 자녀수는 도입된 모든 변수들에 따라서 의미 있는 편차를 나타낸다. 사회적 자본의 세 지표들은 현재 결혼으로부터의 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준다. 대인관계

3)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자료에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절의 출산력 논의는 외국인 아내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 4> 사회적 자본과 이주 후 적응 유형에 따른 출산력 편차

	현재 결혼의 자녀수		총 자녀수(남편의 과거 결혼+현재 결혼+장래 희망)	
	평균	F ratio	평균	F ratio
연결망_크기				
낮은 수준	0.54		2.63	
중간 수준	1.05		2.74	
높은 수준	1.94		3.57	
합계	1.17	58.52**	3.00	25.56**
연결망_사회활동				
낮은 수준	0.56		2.60	
중간 수준	0.90		2.84	
높은 수준	1.59		3.31	
합계	1.02	50.72**	2.93	16.92**
연결망_위세				
낮은 수준	0.82		2.76	
중간 수준	1.14		2.91	
높은 수준	1.54		3.50	
합계	1.01	19.52**	2.92	15.87**
이주 후 적응 유형				
통합	1.50		3.00	
동화	1.60		3.36	
고립	0.82		2.79	
주변화	0.89		2.82	
합계	1.06	18.09**	2.92	5.71**

주: **p < 0.01.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연결망의 크기가 크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직업위세가 높은 연결망에 접근이 가능한 외국인 아내들은 자녀가 많은 경향이 있다. <표 4>에 제시된 F ratio 들의 검증결과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결혼의 자녀수는 연결망_크기와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45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자본의 지표들에 따른 총 자녀수의 편차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총 자녀수는 남편의 과거 결혼에서의 자녀와 현재 결혼으로부터의 자녀,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자녀의 수를 합산하여 측정되었다. <표 4>에서 총 자녀수는 사회적 자본의 세 지표들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음

<표 5> 외국인 아내의 이주 후 적응 유형과 출신국가별 분포

		문화정체성	
		강	약
사회적 자본	강	통합 (Integration) 중국인 아내: 10.6% (18) 베트남인 아내: 2.6% (5) 일본인 아내: 12.9% (25)	동화 (assimilation) 중국인 아내: 10.6% (18) 베트남인 아내: 7.7% (15) 일본인 아내: 34.5% (67)
	약	고립 (Isolation) 중국인 아내: 38.8% (66) 베트남인 아내: 17.5% (34) 일본인 아내: 8.8% (17)	주변화 (marginalization) 중국인 아내: 40.0% (68) 베트남인 아내: 72.2% (140) 일본인 아내: 43.8% (85)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김두섭 외(2008).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정체성의 수준을 강약으로 구분한 후 이를 교차시켜 외국인 아내의 이주 후 적응 유형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강약은 연결망의 크기, 사회활동과 위세 수준을 토대로 범주화되었다. 문화정체성을 강약의 두 범주로 나누는 작업은 다음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1) 국적에 관계 없이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2) 고향 음식을 얼마나 자주 즐기니까?: 3) 고향의 의례행사나 전통적인 명절과 놀이를 얼마나 자주 즐기니까?: 그리고 4) 고향을 대표하는 장식품이나 사진을 집의 거실이나 방에 걸어 두고 있습니까?⁴⁾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558명의 외국인 아내 중에서 8.6%(48명)만이 통합의 적응 유형에 해당되고, 동화 17.9%(100명), 고립 21.0%(117명), 그리고 절대다수인 52.5%(293명)가 주변화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주변화로 범주화된 293명 중에서는 베트남인 아내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아내 68명, 일본인 아내 85명이었다. 그리고 통합형과 범주화형으로 구분된 외국인 아내들이 가장 뚜렷하게 대조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외국인 아내의 평균 연령은 통합형 집단에서 36.8세, 주변화형 집단에서 29.8세로 집계되었다. 교육받은 기간에 있어서도 전자는 평균 9.5년, 후자는 8.7년이었다. 한국 거주기간도 각각 113.2개월과 53.4개월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냈다.

<표 4>를 살펴보면, 통합형과 동화형의 외국인 아내들이 고립형과 주변화형에 비해 현재 결혼에서의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나타난다: 각각 1.50명과 1.60

4) 이 변수들의 보다 자세한 조작적 정의와 작성과정에 관해서는 김두섭 외(2008)를 참조할 것.

명 대 0.82명과 0.89명. 또한 총 자녀수에 있어서도 비슷한 편차의 양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출산력의 양상은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2008b).

비록 이 논문에 그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출산 수준의 편차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일련의 분산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자녀가 많은 외국인 아내일수록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이주 후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폭 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따라서 직업위세가 높은 집단에의 접근성이 강한 경향이 드러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의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수와 외국인 아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라 뚜렷한 편차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V. 회귀분석과 로짓분석

1.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출산력

이 연구에서는 분산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양상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력의 몇 가지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표 6>에는 현재 결혼의 자녀수와 출산간격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아내의 출신국가가 출산력의 수준과 속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진다.

<표 6>의 [모형 1]을 보면,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는 준거집단인 한국인 아내보다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본인 아내 역시 부(negative)의 회귀계수를 보여준다. [모형 2]에서는 외국인 아내의 출산간격이 길어진다는 이 논문의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이 통제될 때, 결혼으로부터 첫째 출산까지의 간격이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 아내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드러난다. 결혼부터 둘째 출산까지의 간격 역시 비슷한 양상

<표 6> 자녀수와 출산간격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현재 결혼의 자녀 수		결혼 - 첫째 출산의 간격		결혼 - 둘째 출산의 간격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b	beta	b	beta
중국_아내	-0.47**	-0.15	4.23*	0.08	2.32	0.03
베트남_아내	-0.42**	-0.13	3.75 [#]	0.07	4.02	0.02
일본_아내	-0.09	-0.02	4.70*	0.08	3.13	0.04
중소도시	0.05	0.03	-1.10	-0.05	1.47	0.05
농촌	0.17**	0.09	-2.83**	-0.11	-0.19	-0.01
연령_아내	-0.02**	-0.08	-0.03	-0.01	-0.46 [#]	-0.11
연령_남편	0.01	0.03	-0.07	-0.03	-0.18	-0.05
초혼_남편	0.31**	0.05	2.35	0.02	7.55	0.04
결혼기간	0.02**	0.64	0.08**	0.19	0.32**	0.41
교육년수_아내	0.00	0.01	0.29	0.06	0.82*	0.11
교육년수_남편	0.01	0.03	0.18	0.04	0.16	0.02
경제활동_아내	-0.28**	-0.16	-0.17	-0.01	-4.59**	-0.14
농업_아내	0.39*	0.04	-4.24	-0.03	-3.76	-0.03
화이트칼라_남편	-0.09**	-0.06	-0.75	-0.03	0.98	0.03
가구소득	0.00 [#]	0.04	0.00	0.05	0.01	0.05
상수	0.11		5.35		17.04	
R ²	0.49		0.06		0.18	
F ratio	95.88**		4.86**		7.72**	
사례수	1,499		1,119		553	

주: 1) 중국_아내, 베트남_아내, 일본_아내, 중소도시, 농촌, 초혼_남편, 경제활동_아내, 농업_아내, 화이트칼라_아내, 화이트칼라_남편은 가변수(dummy variable)의 형태로 회귀모형에 투입되었음.

2) [#]p<0.1, *p<0.05, **p<0.01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이 발견되었으나, [모형 3]에 포함된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에서 아내의 연령이 부의 회귀계수들을 나타내는 이들 회귀모형에 결혼기간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통제의 목적으로 포함된 다른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기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수준이 한국인 아내보다 낮다는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로짓분석의 결과로도 확인된다. 외국인 아내는 출신국가에 관계

<표 7>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의 로짓분석

	첫째 자녀 [모형 1]	둘째 자녀 [모형 2]
	b	b
아내의 출신지역 (준거: 한국)		
중국	-1.29**	-1.18**
베트남	-0.65 [#]	-1.19*
일본	-0.98*	-0.05
거주지 (준거: 대도시)		
중소도시	0.35 [#]	0.13
농촌	0.44*	0.74**
아내의 연령 (준거: 25세 미만)		
25-29세	-0.12	-0.12
30-34세	0.01	-0.12
35세 이상	-0.60*	-0.27
남편의 연령 (준거: 35세 미만)		
35-39세	-0.07	0.34*
40-44세	0.34	0.01
45세 이상	-0.43	0.24
남편의 결혼 경험 (준거: 있음)		
초혼	1.56**	1.15
결혼기간 (준거: 24개월 미만)		
24-47개월	2.42**	29.10
48-71개월	3.32**	30.75
72개월 이상	4.42**	31.50
아내의 교육 (준거: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45	0.72 [#]
대학교	0.58	0.52
남편의 교육 (준거: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1.09**	0.76
대학교	1.19**	0.57
아내의 직업 (준거: 일하지 않음)		
농업	-0.37	17.22
화이트칼라	-1.52**	-0.48*
기타	-1.52**	-0.95**
남편의 직업 (준거: 기타)		
농업	0.85 [#]	-1.17
화이트칼라	-0.30	-0.31 [#]
가구소득 (준거: 200만원 미만)		
중간 소득	-0.42*	0.16
상위 소득	0.26	0.20
상수	-3.29**	-32.88
Nagelkerke R square	0.53	0.53
Log Likelihood Ratio	1,035.99**	1,288.63**
사례수	1,528	1,528

주: [#]p<0.1, *p<0.05, **p<0.01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없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1]에서 음영으로 처리된바, 외국인 아내의 세 로짓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모형 2]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는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한국인 아내보다 뚜렷하게 낮다. 단지 일본인 아내의 경우에는 부의 로짓계수가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살펴본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아내들이 불안한 소수자의 지위로 인하여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 아내보다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출산간격이 길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사회적 자본, 이주 후 적응 유형과 출산력

이 절에서는 외국인 아내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이주 후의 적응 유형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보다 정교한 출산력 인과구조의 파악을 위해서 거주지, 부부의 연령, 남편의 초혼 여부,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 등이 통제변수로 이들 분석모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분석 사례수가 그리 크지 않고 사회경제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과 결혼기간에 관한 변수들이 분석모형에서 제거되었다.⁵⁾ 일본인 아내의 경우에는 통일교의 규범과 가치관이 출산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중국인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 중에서는 통일교도가 각각 2명과 10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종교 변수 역시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인 아내 중에서 비통일교도의 수가 24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가능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적할 것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중국인 아내는 30명, 베트남인 아내는 10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로짓분석의 이분종속변수가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심한 편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주 후 적응 유형과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의 로짓분석에서는 도입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거주지와 외국인 아내의 출신지역만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8>에 제시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출산행위

5) 특히 결혼기간과 부부의 연령 간에는 매우 강력한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내 혹은 남편의 연령을 분석모형에서 제거하고 결혼기간을 포함시키는 분석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 논문의 주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표 8> 사회적 자본과 이주 후 적응 유형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현재 결혼의 자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적 자본								
연결망_크기	0.04**	0.32	0.01*	0.12				
연결망_사회활동	0.01**	0.18	-0.00	-0.02				
연결망_위세	0.01*	0.11	0.00	0.03				
적응 유형 (준거: 주변화)								
통합					0.51**	0.13	0.17	0.04
동화					0.62**	0.21	0.12	0.04
고립					-0.09	-0.03	0.14	0.05
거주지 (준거: 대도시)								
중소도시	0.15	0.06	0.00	0.00	0.67**	0.26	0.21*	0.08
농촌	0.31 [#]	0.10	0.35*	0.11	0.55**	0.18	0.45**	0.15
인구학적 속성								
연령_아내			0.06**	0.38			0.04**	0.30
연령_남편			0.02	0.08			0.01	0.04
초혼_남편			0.40*	0.10			0.38**	0.10
아내의 출신지역 (준거: 중국)								
베트남			0.23	0.08			0.10	0.04
일본			0.58**	0.24			0.83**	0.35
상수	0.15		-2.20**		0.66**		-1.51**	
R ²	0.25		0.43		0.15		0.43	
F ratio	20.62**		22.55**		19.03**		39.13**	
사례수	316		307		558		530	

주: 1) 통합, 동화, 고립, 중소도시, 농촌, 초혼_남편, 베트남, 일본은 가변수(dummy variable)의 형태로 회귀모형에 투입되었음.

2) [#]p<0.1, *p<0.05, **p<0.01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를 촉진시킨다는 이 논문의 가설을 지지해준다. 연결망의 크기가 크고,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연결망의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모형 1]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모형 2]에서 부부의 인구학적 속성과 아내의 출신지역에 관한 변수들이 통제되면, 연결망의 크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회귀계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인 아내와 농촌 거주자의 가변수들은 <표 8>에 제시된 모든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회귀계수들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3]에서 보는 것처럼, 이주 후 통합형과 동

화형에 해당되는 적응 유형의 외국인 아내들이 주변화형보다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도는 상실하였지만 이러한 경향은 [모형 4]에서도 유지된다.

한편, [모형 3]과 [모형 4]에서 보는 것처럼, 고립형과 주변화형의 적응 형태를 보이는 외국인 아내들은 자녀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편차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대했던 바와 같이, [모형 2]와 [모형 4]에서 아내의 연령과 남편의 초혼은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남편의 연령이 지니는 정적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로짓분석의 결과 역시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이 논문의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즉, 이주 후의 적응 유형이 통합과 동화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고립형과 주변화형에 비해 첫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화형의 외국인 아내들이 두드러지게 높은 확률을 지니는 것을 [모형 1]와 [모형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 4]와 [모형 5]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적응 유형에 관한 가변수들이 [모형 3]과 [모형 6]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 유형이 출신국가에 따라서 강한 편포를 나타내며, 사례수가 충분히 크지 못하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에 제시된 모든 모형에서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 남편이 초혼이면 첫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모형에서 남편의 연령이 아내의 연령보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편이 35-39세 또는 40-44세인 경우에는 35세 미만의 남편보다 첫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뚜렷하게 높았다. 이는 주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한국 남자의 결혼연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최근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인 아내, 베트남인 아내,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결혼연령은 각각 36.2세, 38.4세 그리고 31.0세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아내만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에서는 중국인 아내를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일본인 아내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은 〈표 9〉에 제시된 로짓분석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인 아내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은 중국인 아내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표 9>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의 로짓분석

	첫째 자녀를 가질 확률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b	b	b	b	b	b
적응 유형 (준거: 주변화)						
통합	0.83*	0.30	0.31	1.01**	0.89**	0.43
동화	1.05**	0.70*	0.49	1.14**	1.05**	0.22
고립	-0.24	-0.04	0.02	0.16	0.14	0.64 [#]
거주지 (준거: 대도시)						
중소도시		0.80**	0.62*		1.20**	0.48 [#]
농촌		0.74**	0.67*		0.98**	1.16**
아내의 연령 (준거: 25세 미만)						
25-29세		-0.41	-0.39			
30-34세		1.26**	0.44			
35세 이상		-	-			
남편의 연령 (준거: 35세 미만)						
35-39세		0.74*	1.03**			
40-44세		0.96**	1.33**			
45세 이상		0.20	0.59			
초혼_남편		1.34**	1.19**			
아내의 출신지역 (준거: 중국)						
베트남			-0.16			-1.36**
일본			1.29**			2.33**
상수	0.16	-2.18**	-2.31**	-0.18	-1.67**	-2.15**
Nagelkerke R square	0.06	0.29	0.33	0.07	0.15	0.47
Log Likelihood Ratio	730.29**	592.25**	571.78**	659.95**	625.97**	464.224**
사례수	558	558	558	558	558	558

주: 1) 모든 독립변수들이 가변수(dummy variable)의 형태로 로짓모형에 투입되었음.

2) [#]p<0.1, *p<0.05, **p<0.01

자료: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2007).

대조적으로, [모형 6]에서 베트남인 아내는 중국인 아내보다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VI. 요약 및 맺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 혼인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기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목적은 소수인종 집단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혼인이주 여성에 적용하여 보는 것이다.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아내의 출산행위에 관해서는 축적된 지식이나 만족할만한 설명들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서식에는 부모의 인종이나 국적을 표기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 부부들이 한국인 부부들과 출산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결혼 부부의 출산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는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인과기제와 차별출산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 적절한 인구정책의 입안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지난 20여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의 증가추세가 우리 사회의 출산수준과 인구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이에 정책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인구학적 조사자료(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2007)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출산력 조사자료를 통합하여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수준과 속도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 혼인이주한 17-46세의 여성 유배우자 558명과 같은 연령집단의 한국인 여성 유배우자 1,233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조사시점 당시 모두 초혼상태에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아내의 지위는 출산 수준과 속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아내들의 불리한 여건과 불확실성, 불안정성은 출산력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인 아내에 비해 자녀수가 적고 출산간격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은 출산행위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들이 다양한 개개인들과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의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셋째, 이주 후 새로운 사회환경에 통합되거나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은 고립되거나 주변화된 외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많았다. 로짓분석의 결과, 통합형과 동화형의 외국인 아내들은 주변화형의 아내들에 비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외국인 아내들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통합되거나 동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후속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이주 후 적응 유형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지어 진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력의 인과기계 안에서 언제, 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가설들이 연역적으로 도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특정 종교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통일교를 믿는 일본인 아내들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을 수용하고, 피임을 제한하여 출산력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론적, 경험적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외국인 아내의 출산행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적응 과정에 관하여 양질의 경험적 자료가 광범하게 가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두섭 (1998)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의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21(2): 114-181.
- _____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두섭 · 차승은 · Harris Kim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적응》 한양대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보건복지부 (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년 7월.

- 여성(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년 12월 3일.
-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2007) 《아시아 여성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와 정책과
정에 관한 조사》 원자료, 한양대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통계청 (2008a)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_____ (2008b) “2007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8c) “2007년 출생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력조사, 2005》 원자료,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 Abbasi-Shavazi, Mohammad Jalal and Peter McDonald (2000) “Fertility and
Multi-culturalism: Immigrant Fertility in Australia, 1977-199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1): 215-242.
- Abma, Joyce C. and Lauren J. Krivo (1991) “The Ethnic Context of
Mexican American Fertil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34(2): 145-164.
- Berry, John 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pp. 223-239 in *Ethnic in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edited by Leo Driedger, Toronto: Coop
Clark Pitman.
- Boxman, Ed A. W., Paul M. De Graaf, and Hendrik D. Flap (1991) “The
Impact of Social and Human Capital on the Income Attainment of
Dutch Managers” *Social Networks* 13: 51-73.
- Burt, Ronald 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339-365.
- Census Bureau (2008) *International Data Base (IDB)*, On-Line Statistics
Database.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ipc/www/idb/>.
- Chen, Yu-Hua (2007) “The Rise of Cross-Border Marriages and Its Impact
on Fertility in Taiwan” Presented at the Asia Research Institute
Workshop on Low Fertility, February 22-23,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 _____ (2008) “The Significance of Cross-Border Marriage in a Low
Fertility Society: Evidence from Taiwan” Mimeo.
- Coleman, David A. (1994) “Trends in Fertility and Intermarriage among

- Immigrant Population in Western Europe as Measures of Integration”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6: 107-136.
- _____ (2006) “Immigration and Ethnic Change in Low-Fertility Countries: A Thir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 401-446.
- Coleman, James (1988)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isher, N. A. and J. P. Marcum (1984) “Ethnic Integr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Fertility among Mexican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65(2): 583-593.
- Ford, Kathleen (1990) “Duration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ertility of U.S.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1): 34-68.
- Glazer, Nathan and Daniel Moynihan (1963) *Beyond the Melting Pot*, Cambridge, MA: M.I.T. Press.
- Goldscheider, Calvin (1999) “Religious Values, Dependencies and Fertility: Evidence and Implications from Israel” pp. 311-330 in *Dynamics of Values in Fertility Change*, edited by R. Lee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cheider, Calvin and Peter R. Uhlenberg (1969) “Minority Group Status and Fert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4(4): 361-372.
- Gordon, Milt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S.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éran, François (2005) “Demography and Population Policy: Is It Possible to Draw Any Lesson from the French Case?” Presented at the KIPP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Demographic Forum, April 8, 2005, Seoul, Korea.
- Hsia, Hsiao-Chuan (2004)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Trade in Asian Women: The Case of ‘Foreign Brides’ in Taiwan” pp. 181-229 in *Women and Globalization*, edited by Delia D. Aguilar and Anne E. Lacsamana, Amherst, NY: Humanity Books.
- Jean, Lin (2005) “Foreign Spouse Bill Passes Review” *Taipei Times*,

November 11, 2005.

- Johnson, Nan E. (1979) "Minority-Group Status and the Fertility of Black Americans, 1970: A New Loo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6): 1386-1400.
- Kahn, Joan R. (1994) "Immigrant and Native Fertility during the 1980s: Adaptation and Exception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3): 501-519.
- Kennedy, Robert E. Jr. (1973) "Minority Group Status and Fertility: The Iris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1): 85-96.
- Kim, Doo-Sub (2008a) "Status of Foreign Wife and Fert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Taiwanese Data" pp. 285-319 in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edited by Doo-Sub Kim,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 _____ (2008b) "Immigrant Social Capital, Adaptation and Fertility among Foreign Wives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IUSSP and WHO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East and Southeast Asia, organized by the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Tokyo, Japan, November 12-14, 2008.
- Kim, Doo-Sub and Myoung-Jin Lee (2008) "Spouse Dissimilarity and Marital Stability of Divorced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pp. 7-34 in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edited by Doo-Sub Kim,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 Lee, Yean-Ju, Dong-Hoon Seol and Sung-Nam Cho (2006)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The Significance of Nationality and Ethnic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3(2): 165-182.
- Lin, Na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7.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Millan, Jennifer (2008) "Birthplace a Big Factor in Immigrants' Success" *The Globe and Mail*, April 9, 2008, Canada.
- MOI (2007) *Taiwan-Fuchien Demographic Fact Book, 1985-2006*, Taipei: Ministry of the Interior, Republic of China.

- NIPSSR (2006) *Population Statistics of Japan 2006*,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 OECD (2004)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OPEMI 2003*, Paris: OECD.
- Piper, Nicola (1999) "Labor Migration,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Cross-Border Movements into Japa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5(2): 69-99.
- _____ (2003) "Wife or Worker? Worker or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457-469.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Ritchey, P. Neal (1975) "The Effect of Minority Group Status on Fertility: A Re-examination of Concepts" *Population Studies* 29(2): 249-257.
- Roberts, Robert and Eun Sul Lee (1974) "Minority Group Status and Fertility Revisited"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2): 503-523.
- Sly, David (1970) "Minority-Group Status and Fertility: An Extension of Goldscheider and Uhlenberg"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6(3): 443-459.
- Sorenson, Ann Marie (1985) "Fertility Expectations and Ethnic Identity among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An Expression of Cultural Ideals" *Sociological Perspectives* 28(3): 339-360.
- _____ (1988) "The Fertility and Language Characteristics of Mexican-American and Non-Hispanic Husbands and Wives" *Sociological Quarterly* 28(1): 111-130.
- UNPD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for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van Heek, F. (1956) "Roman-Catholicism and Fertility in the Netherlands: Demographic Aspects of Minority Status" *Population Studies* 10(2): 125-138.
- Yang, Wen-Shan and Marloes Schoonheim (2006) "Minority Group Status and Fertility: The Case of the 'Foreign Brides' in Taiwan"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mediated Cross-Border Marriages in Asia and Europe, September 18-20, 2006,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Young, Christabel M. (1991) "Changes in the Demographic Behavior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Transition between Generations" *Population Studies* 45(1): 67-89.

Yu, Kojima (2001)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 199-210.

[2008. 9. 12 접수 | 2008. 11. 23 채택]

ENGLISH ABSTRACTS

Effects of Foreign Wife Status and Social Capital on Fertility

Doo-Sub Kim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mpacts of foreign wife status and social capital on fertility among a group of Chinese, Vietnamese and Japanese wives in Korea. Attention is focused on the argument that minority group status and immigrant social capital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fertility,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It is hypothesized that the level and tempo of fertility of foreign wives reflect their social disadvantages and the adaptation process. Micro-data from two socio-demographic survey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reproductive outcomes of foreign and native wives in Korea. Results of analyses reveal that foreign wives in Korea tend to have fewer children compared to native Korean women. It was found that a foreign wife's access to social capital significantly facilitates reproductive behavior. Those who engage themselves more in voluntary activities, have more friends in Korea, and possess better and higher-quality social networks tend to have more children. Foreign wives with a high degree of integration or assimilation to the new surroundings were also found to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 foreign wives.

Key Words: foreign wife, minority group status, social capital, adaptation of immigrants, Korean fertility